

◀기쁜 우리 날들▶

아내가 저 아닌 누구에게 대장질 하겠습니까 ?

저는 딸이 셋입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들
그중에서도 첫째 딸 때문에 애를 제일 많이 먹지만
그 첫째 딸을 제일 사랑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셋째도 태어나도록 만들어 준 장본인이거든요
다시 말해 첫째 딸은 다름 아닌 제 아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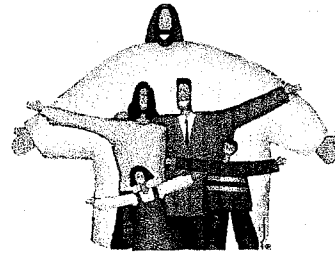
제 아내는 자칭 말하기를 아들 하나 딸 둘을 키운다고
으스대고 다니지만 제가 보기엔 절대 공감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딸 셋을 키우는 게 분명합니다. 자다가도 제가 옆에 없으면 징징 댁니다
진짜배기 딸들은 아빠 찾지도 않는데 엄마가 아주 난리입니다
식사 할 때도 자기가 해준 음식 잘 안 먹으면 잔소리 배터지게 먹어야 됩니다
집에서 쉴 때는 딸들은 지들끼리 노는데 아내는 계속 놀아 달라 졸라 댁니다
그런데 이상한건 제가 그런 아내에게 길들여지고 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다가 아내가 옆에 없으면 몽유병환자처럼 이방 저방 찾아다니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밥먹을 때에도 이것 먹어라 저것 먹어라는 말 안 해주면 밥맛이 푹
떨어집니다

실때~ 아내 혼자 노는거 보면 심술납니다
화 낼 때는 제일 무섭습니다. 잘 해 줄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전 그날 무조건 기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자기는 때리기도 하면서 제가 혼낼라치면 눈에 불이 번쩍합니다
용돈도 삼만원 받기 위해선 저 정말 눈물 겁니다
처가에 자주 전화 안하면 시댁 확 엮어버린다 합니다
무조건 조건부입니다

처음엔 서운 할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압니다
제게 한 가지 시킬 때 집사람 본인은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도 죽도록 어려운건 안 시킵니다
그런 제가 공처가이고 남자 망신시킨다고 홍보시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게 얼마나 편한지 아는 남편들은 알겁니다
미래도 아니 볼 수 없으니 저축한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늙으면 잘해 줄꺼 랍니다 지금 제가 잘 하면요.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건 아내가 저 아닌 누구에게 대장질 하겠습니까
아내말대로 자기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데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큰 것은 목소리 하나뿐인데 그 조그만 사람 가만 놔두어도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들 텐데 괜한 속 썩여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 제 아내 없이는 못 삽니다
제 아내도 저 없인 못산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

<p>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p>	<p>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빌4:13)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p>	<p>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의명성 - 명예</p>
<p>제 9권 16호</p>	<p>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p>	<p>2007년 4월 22일</p>
<p>☎ 369- 5077 Howe St. City (Auckland Girls Grammar School Hall)</p>		<p>www.calvary.org.nz</p>

◀하나님! 나의 하나님▶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결 같이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도움을 줄만한 사람에.
친절한 것은 친절이 아니라 아부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강한자에게는 강하지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하다는 것입니다.

강한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은 비열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가 있건 없건
그 중심이 진실하고, 그 행동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당에서는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한 척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양심을 저버리는 것은 비열한 것입니다.
고학력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에게는 깎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무식한 자나, 궁핍한 자들에게는 불친절한 것은
죄악된 세상의 풍조이며, 타락하고 부패한 행동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누구에게나 위선과 간교함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하려는 태도는
속히 버려야 할 구습이며, 회개하고 청산해야 할 죄입니다.
남녀차별, 인종차별, 학력차별, 빈부차별, 교회내 직분차별등
모든 차별은 죄이며, 차별이 있는 곳에는 상처와 슬픔 있습니다.
차별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나 직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과 같이 우리도, 외모보다는 그 중심을 볼 수 있기를...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찬양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 같이
*찬 송 Hymn	34 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13(시 34)	다 같이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 Hymn	509 장	다 같이
기도 Pray		임병숙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42-43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 하나님을 갈망하라 -	이 태한 목사
찬 송 Hymn	409 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이 태한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243.70

총액: \$312,468.70

◆5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응답송	안내
28	임혜자		본당:권사
6	장현중		현관(1)김교섭 최재학
13	정관영		현관(2)장현중 정덕수
20	정덕수		새교우:이광희 이근평
27	정희자		윤주야 장유진

◆4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1	종려주일 성금요연할예배(6) 아동부캠프(6-8)
8	부활주일
22	여선교회월례회
29	남선교회월례회.

『교회 생활』	『교회 등록』
2007 신앙생활 : 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3주간 예배, 친교 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아동, 학생: 오후 1시 수요일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 수요일 7:00

- 제 5 남, 여 선교회 모임
* 일시 : 4월24일 (화) 오후 6시
* 장소 : 백제성, 장유진 집사 (24 Monteith Cres. Remuera Ph) 520-6049)
- 2007년 요람이 발행되었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안내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 행복한 수요일 밤의 예배 < 수요일 저녁 7:30분 >
*찬양과 말씀에 우리의 3일동안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다른 3일을 다짐합니다.
- 다음과 같이 교우 여러분께 주차장 진입시의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진입시에는 멀리서 부터 지시등(깜빡이)를 켜주십시오.
그러면, 주차요원이 우리 교인차임을 빨리 확인하고 신속히 교통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 Gate앞에서 급 정거를 하지 마십시오.
만약 Gate 진입이 늦었다면 다음 Gate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급정거는 아주 위험합니다.
 -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주차요원의 유도에 따라 주십시오.
출 가까운쪽 Gate는 빨리 차기 때문에 먼 쪽 주차장으로 차량 유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시인들▶

사랑하기에 좋은 당신을 사랑 합니다
강우혁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귀기에 편한 당신의 나이와
부르기에 편한 당신의 이름과
다가가기 좋은 당신의 온도와
함께하기 좋은 당신의 숨결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열개의 기쁨보다 하나의 슬픔이

더 즐거운 사랑
접으면 손바닥만큼 작고
떨치면 하늘을 다 가릴 듯 커지는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 나의 행복이 비치고
힘들 땀 아파해 주고 울어주며
그대 내 몫임을 알게 해준 사랑

사랑하기에 좋은 사람
당신이 곁에 있어서
너무도 행복합니다

169
51
33A